



콜핑, '문경새재 트레킹대회' 3000여명 참여 성황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 기탁도

아웃도어 브랜드 (주)콜핑과 (주)BTR이 지난 3일 경북 문경시 문경새재 도립공원에서 '제5회 콜핑과 함께 하는 문경새재 트레킹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대회에는 고운한 문경시장과 김종길 대한산악연맹 회장, 서현진 콜핑전속모델을 비롯한 30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참가자들은 문경새재 도립공원 주를 관에서 조령관까지 이어지는 길을 따라

트레킹과 클린 마운틴 캠페인을 벌이며 자연을 만끽했다. 이번 행사에서 콜핑은 오토 캠핑장과 슬랙라인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해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또한 문경시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박만영 콜핑 회장은 "앞으로 콜핑과 비티알은 아웃도어와 골프, 생활 스포츠를 아우르는 대표 종합 스포츠 브랜드가 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샷데 봉사단

'빨간밥차' 무료급식 자원봉사활동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샷데 봉사단이 지난 2일 화장동 성산공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빨간밥차' 무료급식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 사택부인회와 봉사단원 20여명이 이날 행사에 참여해 음식을 직접 조리하고 배식을 진행했다. 롯데케미칼 샷데 봉사단 관계자는 "보훈의 달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께서 식사를 대접하고 즐겁게

이야기 나누시는 모습을 대하면서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롯데케미칼 샷데 봉사단은 매일 첫 주 금요일마다 여수노인복지관과 함께 '따뜻한 희망밥차' 배식지원과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지역아동센터와 독거노인 등을 찾아 생활필품과 재능 기부 활동도 펼치고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많이 생겼으면...”

새 일터서 희망찾는 보혜 자회사 '넉과 함께' 주부사원들

“제 이름대신 엄마이자 부인으로만 살았죠. 일하면서 다시 저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 일상이 즐겁습니다.” 매일 아침 직장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삶. 누군가에게는 평범하거나 지루할 수도 있는 일상을 더 없이 소중히 여기는 이들이 있다. 바로 보혜양조 자회사인 '넉과 함께' 사원들이다. 이들은 광주·전남지역 식당과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 보혜 제품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

결혼·출산으로 일자리 잃은 여성 위해 지난해 3월 설립 육아·가사 돌보며 사회활동 삶에 보람 얻고 활력 되찾아

“우리나라 대부분 가정은 혼자 벌어서는 생활하기 힘들어요. 엄마들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말이죠. 일을 하려면 육아와 가사를 누군가 도와줘야 하는데 그런 도움을 받기도 어렵죠. 일을 하면서 집안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예요.” 넉과 함께 사원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자 담당지역에서 일하고 퇴근한다.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집안일을 끝내고 출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원들이 꼽는 넉과 함께의 가장 큰 장점은이다. 전업주부에서 넉과 함께 사원으로 변신한 김선영(45)씨는 사회활동을 하는 자체가 '힐링'이자 '보람'이라고 설명했다. “주부로 살다보면 뭐가 그렇게 바쁘는지, 외출할 기회도 별로 없어요. 봄에 핀 벚꽃과 가을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대로 느끼지 못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혜 '넉과 함께'에서 일하고 있는 윤정서(왼쪽부터)·김선영·김효남·안수진씨.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도 많아요. 직장에서 일하며 외부 활동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삶에 보람을 얻고 활력을 다시 찾게 됐어요.” 어려움도 있었다. 넉과 함께 사원들의 주요 역할은 보혜양조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매일 식당에 찾아가 새로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야 한다. 내성적인 일부 사원들은 낯선 이와의 만남 자체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또한 한 사람 당 평균적으로 500개 업소를 관리하려면 하루에 30여개 식당을 찾아가야 한다. 하루 중일 승용차로 이동하면서 교통사고 위

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실제 몇몇 사원들은 접촉사고를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효남(43)씨 등 사원들은 앞으로도 넉과 함께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넉과 함께 사원들은 각자가 걸어다니는 보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팔고 행동이 곧 보혜라는 생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저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고마운 회사잖아요. 소비자들에게 보혜양조 제품을 열심히 알리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게 회사를 위한 길이자 저희 자신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최재희기자 lion@kwangju.co.kr

민경준 광양제철소 부사장 등 5명 '자랑스러운 전남대인'

민경준(59) 포스코 광양제철소 부사장, 박인수(68)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이사장 등이 전남대 개교 65주년(9월)을 맞아 '자랑스러운 전남대인'으로 선정됐다. 전남대는 '자랑스러운 전남대인'으로 민 부사장, 박 이사장, 유병권(57)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유승준(57)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무국장, 조성희(52) 사이버테크㈜ 대표이사 등 5명을 선정했다. 민 부사장은 전남대에서 학·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84년 포항제철 입사 이



민경준 부사장 박인수 이사장 유병권 위원 조성희 대표 유승준 사무국장

후 33년여 동안 국내 철강산업 발전에 공헌했다. 박 이사장은 전남대 의대 출신으로 1998년 인공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여 년 동

안 지역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했다. 유 상임위원은 전남대 회계학과를 나와 행정고시(33회)로 공직에 입문, 국토교통부 요직을 두루 거치며 국토건설 분야 발전에 힘썼다. 유승준 사무국장은 전남대 공법학과 출신으로 행정고시(36회)를 거쳐 25년 동안 검찰행정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조성희 대표이사는 전남대 법대를 나와 1995년 사이버테크㈜를 설립, 20여 년 동안 IT융합기술 발전을 이끌어온 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상식은 8일 오전 9시30분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개교 65주년 기념식'과 함께 열린다. /김지희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신용초 '아빠와 함께하는 자전거여행' LH 빛고을봉사단, 취약계층돕기 500만원



광주 신용초등학교(교장 박철신)는 부자지간 추억을 만들어주고 가족간 소통을 위한 행사를 최근 2일 동안 '아빠와 함께하는 자전거여행' 행사를 열었다. <광주신용초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정기) 빛고을 나눔봉사단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취약계층 아동들이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풍암동주민자치회, 자생단체 화합 워크숍 화순전남대병원, 전남도립국악단 초청 행사



광주시 서구 풍암동주민자치회는 지난 2일 장흥 정남진리조트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지역 내 자생단체 회원 100여명이 참석해 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풍암동주민자치회 제공>



화순전남대병원(원장 김형준)이 최근 환자과 보호자·지역민들의 협력을 위해 최근 전남도립국악단을 초청해 국악 잔치를 열었다. <화순전남대병원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충진회

▲전주시에 대중중약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이달우) 월례 이화회(회장 이강렬) =13일(화) 오후 6시 지원회의실 062-225-5636.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랑애틀바사입단 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사업 =서구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

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정의입관용품무로지원, 장례지도사무로지원 062-369-4009.
▲열린마음 상담센터 중독 문제 전문상담=월요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선간 및 중독 무료 상담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광주서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인터넷·도박·니코틴·약물 등 무료상담 및 정보제공, 가족교육 및 자조모임운영 생애주기별 예방교육, 지역주민 및 직장인 예방교육 실시 062-654-3802.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광주광산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

=중독문제(알코올·인터넷·약물·도박)로 고민하는 당사자나 가족 대상 무료상담 및 재활프로그램 제공, 온라인 비공개 무료상담 제공(www.gsgacc.or.kr) 문의 062-714-1233.
모집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중장년세대를 위한 무료 프로그램 참가자=스마트워크 & 오피스(매주 월요일 오전 10시~12시), 중년들의 몸퍼기운동(매주 월요일 오후 2시~4시), 생애설계 이해와 방향(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장소 광주 광산구 소촌동 232-2, 광주시공무원교육원 4층 강당, 문의 062-600-5242.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충남재가복지센터 회원=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요구상담·노인복지상담 일반가족 회원가입 상담 062-942-9982.
▲생활 체육 배드민턴 회원=광주 북성

중학교 오전반 5시30분~7시30분. 011-618-7882.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l@Home) 호스트=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 가정으로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할 가정. 손발용 독방 및 침구제공, 아침 식사 제공, 화장실, 주방시설 및 기본 가전제품 공동사용 가능한 가정. 광주국제교류센터 062-226-2734.
▲대학생 봉사단=자원봉사 상설체험·홍보, 손발맞사지, 지역아동센터·돌봄교실지원, 공연,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으로 광주지역 거주 대학생.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6.
▲외국어전문봉사단=광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통역 봉사활동으로 외국인 과 회화가 가능한 분,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및 기타 외국어.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4.
▲심정재가 장기요양기관 회원=장기요양 신청 및 등급 판정 수시상담, 고령, 노인성 질환(치매·중증·노환), 청소, 취사,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차량목욕),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

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062-264-7748, 018-690-5356.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회원=언어발달 평가(표준화된 언어평가 도구 사용), 언어발달 교육(개별·모듬 수업 : 주 1~2회, 회당 40분). 초등학생 이하 다문화 가정의 자녀. 광주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070-8768-9461.

부음
▲임금예치 별세 장경철(명성산업개발 대표)·경창·경희(광주 동구청 주무관)·두경(광주시교육청 주무관)씨 모친상 장아름(연휴뉴스 광주전남취재본부 기자)씨 조모상=발인 7일(수) 광주 학동금호초등학교 062-227-4000.

謹 上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210회 故입금에 남(여/87세) 子/子婦 : 장경철/김순례, 경창/고수현, 경희/김미숙 杜경/김소연 女/婿 : 장경순/정분기, 미경/김지영, 경화 未成人 : 진숙희 • 발 인 : 6월 7일 • 장 지 : 임실초등학교 • 연락처 : 227-4381	301회 故장경성 남(남/72세) 子/子婦 : 장경현/장부선 女/婿 : 김미선/김재남, 미경/김현희, 미아/박현준 未成人 : 진숙희 • 발 인 : 6월 6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2
401회 故방금원 남(남/57세) 子 : 방성극 女/婿 : 방영이/김사현 未成人 : 김연숙 • 발 인 : 6월 7일 • 장 지 : 화산이영 선영 • 연락처 : 227-4383	102회 故우숙현 남(여/48세) 兄弟 : 우동욱, 동현, 지현 • 발 인 : 6월 7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5

함께한 10년, 함께 할 100년
금호 장례식장 062-227-4000
 www.mykumho.com
 대표이사 구제길